

그 특이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28-38)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만남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전도여행은 없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된 뒤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다시는 장로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그의 권면은 어디에 서 있든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것이며,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특이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닌 파수꾼입니다. 바울은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이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말씀처럼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지 않아 악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 값을 파수꾼에게 찾지만, 힘을 다해 경고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산꼭대기 거대한 댐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위험을 알리고 대피하라고 외친 사람에게는 무너진 댐에 대한 피 값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경고를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뿔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 마음에 드는 은혜만 골라 취하며 세상에서의 안락을 추구하는 미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죄인이기에 가만히 두면 누구나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망의 형벌에서 인류를 건져낼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사명은 이 구원의 백신을 이웃에게 전하

는 일입니다. 파수꾼 사명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선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절박함을 품고, 눈물과 기도로 영혼을 일깨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화려한 행정 체계나 당회의 조직을 구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양 떼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상 교회는 안팎으로 두 가지 거센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성도들을 삼키려는 이단과 같은 사나운 이리 떼의 습격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서신서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아홉 권의 책이 이단 문제를 경계하고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록되었을 만큼 외부의 위협은 집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왜곡의 공격입니다. 바울과 눈물로 열싸웠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늘어놓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나운 이리의 역사를 이겨낼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뿐입니다.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성도가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성도들은 오래 참고 기도하며 권면하기보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다툼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 친목 모임보다 더 흉측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 하나만을 무기로 삼아야 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오롯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묵묵히 쳐주고 당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야말로 교회를 지키는 참된 방패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받는 복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자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낮고 사업이 번창하며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식의 기복적 변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원리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1990년 초반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한 교회가 50억 원의 건축 계획 속에서 모아놓은 현금 6억 원 중 십일조인 5억 원을 먼저 형편이 어려운 다른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을 내려놓고 남의 교회를 먼저 세워주었을 때, 그 교회는 이후 닦쳐온 가혹한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성전을 훌륭하게 완공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이 축적하고 대접받는 자를 복되다 부르지만 더 많이 나누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이점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한 현실적 행복과 형통으로만 포장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은 고난과 멸시, 궁핍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면류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는 식의 기복주의는 한국 교회의 영성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며 험한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성도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놓는 거룩한 포기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책임감,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교회를 지키는 충성심,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정신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고유한 표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 의무가 있습니다.